

## ■ 2025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공연예술) 전통예술 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공연예술) 전통예술 분야
- 회의일시 : 2025년 5월 14일(수) 10:00~18: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2층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호중, 김성민, 임미선, 장재효, 주재근

지역예술도약지원(공연예술)은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향유활동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역의 우수 예술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국내 시장 및 해외 진출의 가교 역할을 통해 지역예술의 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의 공연예술단체가 보유한 작품의 예술적 수월성 제고 및 지역 소재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작품의 2차 제작 또는 레퍼토리화 및 재공연 지원을 통해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에 사업 목적을 두고, 연극(뮤지컬)·무용·음악(오페라)·전통예술 이상 4개 장르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예술 분야는 정악 · 민속 · 관현악 · 풍물 · 연희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2025년 지역예술도약지원(공연예술)의 심의 대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4개 광역문화재단에서 2024년도에 추진한 공연예술 특화(집중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예술단체 중 각 광역문화재단의 내부 논의를 거쳐 추천을 받은 예술 단체입니다. 그 중 전통예술 분야는 총 19건이 접수되었고, 행정 결격 단체를 제외한 18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여 최종 9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는 전통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진행하였으며, 추천 작품의 작품성(30%), 사업계획의 타당성(40%), 예산 편성의 타당성(20%), 추천 작품의 기대효과(10%) 등 총 4개 심의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의 방법은 단체에서 제출한 지원신청 서류를 토대로 1차 사전 전수검토를 실시하였고, 2차로 심의 대상 18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는 단체 별로 15분을 배정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5분, 심의위원의 질의 10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심의에서 심의위원 질의는 주로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 중 확인을 요하는 부분, 예산 편성 계획의 적절성, 사업 진행을 위한 공연장소 섭외 계획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신청 작품에 대한 예술성과 타 작품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 기존 작품 및 공연 결과에 대한 자체·외부 평가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단체의 개선점 파악 및 개선 의지 정도, 사업계획에 적합한 참여 인력의 구성 및 역량의 우수성, 예산 편성의 합리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작품의 성격이 전통예술 분야에 어울리는지, 해당 작품의 발전이 전통예술 분야에 공

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심의 시작 전에 심의 위원들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해 협의를 이루어냈으며, 대체로 심의 결과에서 의견일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 평가 과정에서 사업의 특성 상 지역적 안배, 장르별 특성, 예술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작품의 예술적 수월성 및 성장 가능성을 우선으로 하여 심의한 결과 자동적으로 선정 단체가 일정 장르 및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작품은 예술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독창성, 작품의 개선을 통한 지역예술 작품의 성장과 도약의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우수한 작품으로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정 단체는 이미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편이었고, 기존 작품에서 나타난 개선점에 대한 인식과 개선 의지가 높았으며, 지역 예술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각 작품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항목별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청 단체에서 계획한 예산을 존중하는 것으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정단체의 사업 포기 가능성을 고려해 차점 단체를 예비후보로 지정하였습니다.

신청한 공연 작품들 중 대부분이 지역성을 소재로 구성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지역 고유의 음악 자체를 부각시키는 것부터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에 부조된 주악상이나 악기들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시도가 보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지역예술도약지원(공연예술)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지역성의 강점이 다소 부족한 경우도 있었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이 우수한 점이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도를 높이는 좋은 공연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지원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정되지 못한 단체의 작품에서는 소재를 풀어내는 공연의 완성도가 부족하기도 하였고, 몇 개의 프로그램을 엮은 공연에 어색한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오히려 공연 내용이 부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진행되는 역효과가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면 향후 좋은 작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정된 작품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거듭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역의 공연예술이 전국의 무대로 확산되고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한 단체는 좀더 좋은 작품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의위원 일동